미경씨,

6고

박소연 作

연출의도/기획의도

: LA RECHERCHE DU NOM

이 영화에 등장하는 완성된 그림은 저희 어머니의학부 졸업작품 입니다. 이사를 오면서 버리려고 하시던 것을 제가 만류해 베란다 한 켠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. 그 그림을 보며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만약 제가 10년쯤 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필연적으로 꿈을 버려야만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에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.

세상이 많이 변했다는데,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현실에서, 잃어버린 이름들을 찾아주고 싶습니다.

미경씨도, 결국에는 그대들 모두 다 현실로 인해 잃어버린 이름들을 현실에서 찾아내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.

시놉시스

미경씨는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?

미경씨는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인 정훈씨와 바로 결혼했다. 살다보니 어느덧 삼십대 중반을 바라보는 아줌마이자 사랑스러운 민준의 엄마가 되었다. 그녀는 치매 증세가 있으신 아버지와 남편 정훈씨 그리고 아들 민준과 함께 넷 이서 살아가고 있다.

졸업반 일 때 결혼 준비를 하느라 완성하지 못했던 졸업작품을 공모전을 기회로 새로 완성시켜보려 하는데, 아들 민준, 아버지 영식씨, 남편 정훈씨까지 하나 같이 그녀가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한다. 과연 그녀는 무사히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?

등장인물

미경씨 : 삼십대 초반, 미술대학졸업. 주부. 정훈씨와 연애 결혼했음,

한 아이(민준)의 엄마. 영식씨의 첫째 딸

졸업 학기 일 때 민준을 임신해 결혼을 준비하느라 졸업작품을 완성하지 못했다.

이번에는 꼭 그림을 완성시켜보고 싶다.

정훈씨 : 삼십대 후반, 대학병원 의사, 부교수, 능력을 인정받아 빨리 부교수가 된 케이스,

집안에 원래 돈이 많으며 현재 영식씨의 치료비까지 대고 부양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인

능력이 좋다. 외도를 하고 있으나 가정에 헌신적인 편, 특히 아들 민준이는 끔찍하게

위하고 아낀다.

민준 : 7살 남자아이, 2011년생, 애교가 많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.

영식씨 : 미경씨의 아버지, 60대, 함께 산다. 치매 경도 단계, 질문을 반복해서 하신다.

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시지만 최근 바지에 실수를 하는

일이 잦아졌다.

화방주인 :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외모, 미경씨가 학부시절 자주 가던 화방의 주인이다.

호쾌한 성격의 소유자.